

< 발가벗은 사내 >

- 윤평안

불과 몇 주 전에

택함이 등교길에 대로변에 나체로 앉아있는 사내를 보았다.

그 남자 몸에 걸치고 있었던 건 한쪽 발에 둘둘 말아 싸맨 비니루가 전부였다.

번뜩 스치는 생각을 나누고 싶어 택함에게 물었다.

....

택함아, 방금 발가벗은 남자 (naked man) 봤어?

택함이 특유의 씨크한 화법으로 답이 돌아왔다.

아니. 잘 했다고 해.

"그 남자를 보고 아빠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차에 나눠줄 옷이 있는지 생각 했어.

물론 없었어.

널 학교 내려주고 집에 갔다 오면 그 남잔 그때까지 거기 있을까?

집에서 어떤 옷을 챙겨올까?

마음속으로 스캔하는데

입지 않는 옷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건 아빠가 아끼는 거니까 안 되고, 그것도 아끼니까 아니고,

어쨌든 대부분의 옷은 사이즈가 맞지 않을 거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생각나는 거야.

요새 아빠가 묵상하는 말씀이 그 이야기거든.

그 이야기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가 되어 집에 돌아오는데
아직 집에서 먼 곳에 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걸 본 거야.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아주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 갔잖아.
아들을 보고 두 팔 벌려 끌어안았지.
옷은 헤어지고 더러워져 아들의 행색은 거지 같았어.
그런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야기하지.
어서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아빠 가장 허름한 옷, 내가 입지 않는 옷을 내어다가 입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야.
아빠의 생각과 그 이야기의 아버지 행동과 너무 대조되잖아.

이 이야기의 실화는 이렇게 전개돼.
아버지는 아들의 누더기 같이 더럽고 헤어진 죄의 옷을 벗기고
그 대신 가장 좋은 아버지의 의의 옷을 입히시는 거야.

이 이야기가 아빠에게 실제로 일어난 개인적인 이야기로
입체적인 나의 이야기로 갑자기 다가오더라.

내가 벌거벗은 그 사내가 되어있고
아버지가 내게 달려와 나를 안아 주시며
내가 입은 누더기 같이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그걸 자신에게 입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게는 자신의 의의 옷을 입히시는
그 이야기가 아빠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 난 거야."

.....

그런 이야기를 하며 아들을 학교에 내려주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사내가 누워있었던
곳을 보니 그는 더이상 거기 없었다.

한편으론 내가 그 사내를 돕지 못해 아쉬웠지만,

또 한편 누군가 그 사내에게 따듯한 도움의 손길을 건넬 거라고,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신호등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내 눈앞에

허리춤에 얇은 자켓을 들렀으나 여전히 상 하체를 드러낸 채

쓰레기 통에서 플라스틱병을 뒤척이는 사내가 눈에 띄었다.

경찰이 접근해서 여기서 남의 비즈니스 방해하지 말고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구석으로 가라고 실갱이 벌이는 듯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집에 도착해서 급히 사내가 입을만한 큼지막한 반바지와 반팔을 주섬주섬 챙겨 그 사내를
다시 찾아 나섰다.

아까 거기 근처 대로변에 주차하고 옷을 들고 그 사내가 쫓겨 갔던 곳을 따라 걸어갔다.

워낙 대로변이라 (실크로드/비단길) 그 사내가 몸을 숨길만한 곳은 금새 없어졌고 다시
차도가 나왔다.

두리번거리는데 길 건너편 아까 누워있던 그 장소에 옆으로 누워있는 사내를 발견했다.

다가가 옷을 건네는데 미안하게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러시아어로 무엇인가 항의하듯
따지듯 샷대질을 하며 이야기한다.

그러더니 옷을 거부하며, 계속 건네는 나를 잡아채려 하고

손바닥으로 나의 팔을 쳤는데 위협적이지도 아프지도, 그리 폭력적이지도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옷을 건네니 길바닥에 작은 돌맹이를 들어 내게 두 번 던졌지만

옆에 있던 큰 돌은 들지 않는 걸로 봐서

그냥 나를 물리려 한 행동이었지 해를 가하려는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았다.

아무리 옷을 건네도 으르렁 거리는 그에게 이 방법은 통하지 않았다.

근처 마켓에 가서 물과 과일, 그리고 샌드위치를 집어 들었다.

뚜껑을 돌려서 열어 마시는 병물을 집어 들었다가

예수님이 마시다가 흘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sports bottle 로 바꿨다.

여러 종류의 샌드위치 가운데 가장 좋아 보이는 걸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좋은 걸 골라 들었다.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이정도면 아저씨 뿐만 아니라

나도 제정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맨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에

제정신이 아닌 아픈 사람에게 작은 위로를 건넬 수 있다면...

열 두 번 더 미쳐도 행복할 거라 생각했다.

잠이 든 아저씨 얼굴 앞에 음식과 반바지를 넣은 봉투를 놓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시간은 정오 12 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아침부터 벌어진 일이었고 12 시 30 분에 약속이 있었지만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 사내에겐 어떤 구원이 필요할까.

생각하다

생각을 다시 고쳐먹었다.

부활의 때에 그 사내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로...

물론 그 사내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날에 그 사내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자신에게 일어난 회복에 얼마나 놀랄까.
자신의 의의 옷으로 그의 모든 허물을 덮으신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해하실까.
그 사내의 역사에 티끌만한 일부였던 나도 그 행복과 즐거움에 동참하게 될까...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내를 보며
여러 생각에 빠졌던 하루였다.
